노동부 '2010 산업재해 감소 워크샵' 개최

취재 | 임동희 기자

노동부는 2010년 1월 11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2010 산업재해 감소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최근 확정된 올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점 추진 사항을 각 지청 및 관련기관 등에게 소개하고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워크샵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김양현 지도과장 · 여인형 사무관, 함병호 사무관, 서울서부지청 유인성 근로감독관 등 정부 인사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영근 안전기술팀장 등 서울지청 관내 민간안전관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동부 김양현 지도과장은 노동부를 대표해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등의 기술지원을 비롯하여 교육과 재정부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관서는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게 된다. 노동부는 향후 지방관서별 재해감소 실적을 평가, 사고성 재해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인성 감독관은 서울 · 강원지역 '2009년 사업현황 및 2010년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유 감독관에 따르면 서울지청은 'CLEAN-건설현장 안전체험'이라는 주제로 184개소의 현장을 참여시켜 안전협의체를 구성,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정돈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으로 인정하도록 본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끝으로 민간 안전관리기관 대표로 발표에 나선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영근 팀장은 "올해에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에 상급자와 동행 방문하는 등 기술지원의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분야 우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순천제일대학 산학협력협약체결

취재 | 임재근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0년 1월 12일 순천제일대학 인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협약식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력의 양성 ·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과 순천제일대학 성동제 총장, 협회 임직원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협약식은 협약서 서명과 교환,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체결된 협약에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 향상을 위한 노력", "신기술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우수 인력의 장학금 지원 및 우선 채용기회 제공",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실험분석기기 등의 공동활용", "양 기관의 소장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회장은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안전분야의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산학연계 사업을 추진해 감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제일대학의 성동제 총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 프로그램 개발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해 충주대학교, 부경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 지원과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